

장애 넘어선 아름다운 도전...제주서 하나되다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오늘 개막...광주·전남선수단 개회식 동시 입장

광주...육상 정지승, 탁구 김영진·서수연, 펜싱 김선미·조예진 '금 예약'
전남...육상 정대광·당구 조경화 '다관왕', 볼링 신백호 '2연패' 도전장



JEJU 2026

이번 대회엔 전국 16개 시·도 선수단 9천141명이 참가하며 총 31개 종목이 제주 강창학종합경기장 등 38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전남광주통합특설시 출범에 발맞춰 광주·전남선수단은 11일 오후 7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에 같은 단복을 착용하고 공동 입장한다.

광주시·전남도선수단은 함께 대회의 시작을 알리고 서로를 응원하며, 진정한 하나됨을 통해 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만들어 가는 협찬 첫걸음을 내딛는다.

광주시선수단은 안정적인 한자릿수 순위 달성을 목표로 사격, 양궁, 탁구 등 22개 종목에 388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보치아 국가대표 최아영(EY한영)이 금메달을 예약한 가운데 양궁 김옥금·윤태성(이상 전남광주통합특설시), 김관숙(한전 KPS), 역도 양지은(광주테크노파크), 육상

정지승(한전 KPS) 이다관왕에 도전한다.

국가대표 김영진, 김성옥, 서수연을 선봉으로 김정길, 이준(이상 전남광주통합특설시)이 드림팀으로 나서는 '효자 종목' 탁구와 국가대표 김선미(한국전력공사), 조예진(광주시장애인펜싱협회), 최건우(한전 KPS)를 중심으로 최정우(광주시장애인펜싱협회), 박현재(한국전력공사)가 포진한 펜싱은 이번 대회 최고의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한상득 광주시장에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이번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경연을 넘어, 광주와 전남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위대한 '통합'의 에너지를 전국에 증명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며 "우리 선수단이 경기장에서 흘릴 화합의 땀방울은 다가올 통합 시대의 굳건한 초석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 된 힘과 흔들림 없는 원팀(One Team)의 정신으로, 장애인 체육이 그 영광스러운 첫걸음을 가장 선두에서 이끌며 최고의 결실을 맺고 돌아오겠다"고 덧붙였다.

700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전남은 육상 정대광이 3관왕(투포환·원반던지기·창던지기), 황상준(한국농어촌공사)이 4관왕(800m·1,500m·



제주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광주·전남선수단이 지난날 28일 전남광주통합특설시에인국민체육센터에서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남·광주 장애인 선수단 통합 결단식'을 개최하고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시·전남도장애인체육회 제공〉

5,000m·10km) 사냥에 나선다.

당구 조경화(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여자 원구선과 3쿠션 단체전 BIW(선수부)에서 3관왕에 도전하고, 사이클 허윤정(한국전력공사)은 도로독주 금메달에 도전한다.

이밖에 볼링 신백호(포스코DX)는 대회 2연패 도전장을 던졌고, 지난해 준우승에 머물렀던 골볼 남자팀과 배구 여자팀은 올해는 반드시 정상에 선다는 각오다.

전통 강세 종목 카누는 대회 5연패라는 대기

록에 도전한다.

곽춘식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이번 개회식 공동 입장은 전남과 광주가 하나의 체육 공동체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자, 선수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가는 출발점"이라며 "전남과 광주선수단 모두가 서로에게 힘이 돼 그동안 준비한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돕고, 두 지역 선수들이 함께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껏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도선수단은 사전경기로 열

린 사격에서 '금빛 총성'을 울리며 기분좋은 출발을 알렸다.

광주는 패러림픽 신기록을 경신하며 4관왕에 오른 박승우(전남광주통합특설시)의 활약에 힘입어 금메달 4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고, 전남은 백승학(한전MCS)이 남자 공기소총 입사 개인전 금메달, 이윤리(한전MCS)가 여자 공기소총 입사 개인전과 여자 50m소총 3자세 개인전에서 은메달 2개를 따내며 선수단 사기를 진작했다. /박희중기자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이 지난 9일 광주여대를 찾아 전국체전을 앞두고 훈련 중인 양궁과 배구선수단을 격려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광주’ 그 마지막 이름, 감동으로 빛내달라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전국체전 참가 광주선수단 훈련장 찾아 격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이 제107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훈련 중인 광주선수단을 찾아 선전을 당부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지난 9일 광주여대(배구, 양궁)와 송원대(야구, 배드민턴, 세팍타크로) 등 전국체전 출전을 앞두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선수들의 훈련 현장을 찾아 선수단의 훈련 상황을 점검하고, 선수와 지도자들

을 격려했다.

이번 훈련 격려는 9일 야구 등 12개 종목을 시작으로 14일 광주체고를 찾아 체조 등 10개 종목, 조선대 김도 등 9개 종목을 격려했다.

이어 15일에는 남부대, 호남대 등을 방문해 축구, 복싱, 수영 등 10개 종목 등 18일까지 종목별 훈련 일정을 고려, 주요 훈련장을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유난히 더웠던 여름 흘린 땀과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부상 없이 컨디션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통합을 앞두고 광주를 대표하는 역사적인 선수라는 자긍심을 갖고 매 경기 최선을 다해 광주를 빛내달라"며 "광주시체육회도 선수와 지도자들이 최고의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목포해양대 이진솔 '3관왕'·박우진 '2관왕'

제44회 전국카누선수권 대회

목포해양대 카누선수단이 지난 6일 울산 태화강 일원에서 막을 내린 '제44회 전국카누선수권대회'에서 무더기 메달을 수확했다.

전국 카누 유망주와 실업·대학부 최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출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친 이번 대회에서 목포해양대는 체계적인 강화훈련과 풍부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매 경기 높은 집중력을 발휘했다.

이진솔의 활약이 돋보였다. 이진솔은 남대부 K-1 200m 결승에서 압도적

인 스피드로 금메달을 목에 건 데 이어, 박우진과 호흡을 맞춘 K-2 200m, 500m 등 2개의 종목에서도 연달아 금빛 물살을 가르며 대회 3관왕에 올랐다.

이진솔은 K-1 500m에서도 은메달을 추가하며 메달 4개를 목에 걸었다.

박우진도 K-2 200m, 500m 2관왕과 함께 K-1 1,000m에서 값진 은메달을 추가하며 금 2, 은 1개로 자신의 전기를 과시했다.

C-1 종목에 출전한 이진우는 1,000m와 200m에서 각각 동메달 2개를 따내며 전 종목에 걸친 고른 전력을 입증했다. /박희중기자



광주FC "이번에는"

오는 13일 안양과 홈맞대결



프로축구 광주FC가 긴 기다림 속에서도 변함없는 응원을 보내주는 홈 팬들에게 승리로 보답하기 위해 FC안양전에 모든 힘을 쏟는다.

광주는 오는 13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안양과 하나은행 K리그1 2026 29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승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긴 시간 원하는 결과를 만들지 못하면서 팬들의 기다림도 길어지고 있다.

광주는 직전 제주SK FC와의 홈경기에서 0-1로 패했다. 뼈아픈 기록도 남겼다. 광주는 2라운드 인천 유나이티드전 승리 이후 2경기 동안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광주는 이날 제주의 패하면서 K리그 1:2부를 통틀어 최다 연속 경기 무승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새 기록을 작성했다. /박희중기자

아쉬움을 털고 새로운 각오로 나서는 광주에게 희망은 있다.

안양전에는 지난 두 경기에서 퇴장 징계로 결장했던 주장 안영규와 신예 김우진이 나란히 복귀한다.

특히 안영규의 가세로 최근 부상과 징계가 겹치며 어려움을 겪었던 중앙 수비진의 선택지가 넓어졌다.

여기에 제주전에서 휴식을 취한 베테랑 수비수 민상기도 출격을 준비하면서 최근 포지션을 바꿔 중앙 수비를 책임졌던 리영직과 장석환의 부담도 덜 수 있게 됐다.

안양을 상대로 보여준 강세도 다시 한번 살려야 한다. 광주는 안양과의 역대 맞대결에서 1승 9무 6패로 앞서 있으며, 최근 10경기에서도 5승 4무 1패로 강한 모습을 보였다.

안양이 최근 5경기에서 15실점을 허용한 만큼, 적극적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고 만들어낸 기회를 득점으로 연결하는 것이 승부의 중요한 열쇠가 될 전망이다. /박희중기자

9일 비골 골절 정복술, 11일 퇴원 예정...AG출전 여부 의료진 소견 토대 결정

KIA 타이거즈 김도영이 코뼈 수술을 받았다.

당장 1군 엔트리에서는 빠지지 않는다. 복귀 시점은 회복 상태를 확인한 뒤 결정한다.

KIA 구단은 10일 "김도영이 9일 밤 구단 지정병원에서 비골 골절 정복술을 받았다"며 "입원 치료 후 11일 퇴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골 골절 정복술은 부러진 코뼈를 원래 위치로 맞추는 수술이다.

회복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선수의 상태와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KIA는 김도영을 1군 엔트리에서 말소하지 않을 예정이다. 퇴원 후 회복 상태를 살핀다. 이후 기술 훈련을 시작할 시점을 정한다.

김도영은 지난 9일 열린 NC와의 홈 경기에서 4회말 NC 선발 송명기의 초구에 기습번트를 시도했다.

시속 148km 직구가 배트에 빗맞았다. 튀어 오

른 타구는 김도영의 얼굴을 때렸다.

김도영은 코피를 흘렸다. 트레이너의 응급 처치를 받은 뒤 대타 박민과 교체됐다.

이후 구단 지정병원으로 이동했다. X-ray와 CT 검사 결과 비골 골절 소견이 나왔다. 김도영은 같은 날 밤 수술까지 마쳤다.

김도영의 부상은 막판 순위 경쟁의 변수다. 정확한 복귀 시점은 아직 알 수 없다. 당분간 정상 출전도 어려울 전망이다.

아시안게임 출전 여부도 관심사다.

김도영은 2026 아시안게임 나고야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에 뽑혔다. 대표팀은 오는 14일 소집된다. 17일에는 일본 나고야로 이동한다.

조별리그 첫 경기는 오는 21일 대만전이다. 김도영은 대회 출전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선수의 뜻만으로 출전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는다.

KBO 전력강화위원회는 의료진의 진단과 소



견을 확인할 예정이다. 부상 정도와 경기력 유지 가능성도 살핀다. 이를 토대로 선수 교체 여부를 결정한다.

수술은 마쳤다. 이제 회복 속도가 관건이다. KIA 복귀와 아시안게임 출전 여부도 의료진 소견에 따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주홍철기자